

**LB인베스트먼트, 2,800억원 규모 펀드결성...역대 최대 관리보수 매출 확보**

- ▶ 3월 29일 조합원총회로 'LB혁신성장펀드II' 최종 2,803억원으로 결성
- ▶ LB인베스트먼트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 펀드
- ▶ 약정총액(AUM) 1조 2,430억원으로 증가하여 금년 관리보수 150억원 예상
- ▶ 금년에도 2천억원 이상의 투자 집행 계획 밝혀

<2023-03-31> '벤처투자 명가' LB인베스트먼트(대표이사 박기호)는 3월 29일 'LB혁신성장펀드II' 최종 결성을 마무리하는 조합원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.

지난 2022년 11월 1,778억원 규모로 1차 클로징을 한 이후, 2023년 3월까지 1,025억원을 추가 모집하여 총 2,803억원으로 결성을 마무리했다. 이로 인해 LB인베스트먼트의 현재 약정총액(AUM)은 1조 2,430억원으로 증가했으며, 금년 150억원대의 관리보수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. 2020년 12월에 결성된 LB넥스트유니콘펀드(3,106억원)에 이어 LB인베스트먼트의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펀드를 성공적으로 결성한 셈이다.

LB인베스트먼트는 이번 펀드 결성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, IBK 뉴딜펀드 2호, 노란우산공제회, 과학기술인공제회, 교직원공제회, 우정사업본부, 사학연금, 군인공제회, 총회연금재단 등이 진행한 모든 출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.

이번 펀드는 2019년 12월 결성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'LB혁신성장펀드 I'의 방식과 유사하게 신주와 구주를 병행하여 투자하는 하이브리드 성격의 펀드로 운용할 계획이다.

'LB혁신성장펀드 I'에서는 크래프톤(배틀그라운드 게임 제작사), 무신사(의류 플랫폼), 네이처앤네이처(화장품 기획 및 판매), 세미파이브(반도체 설계플랫폼), 큐로셀(CAR-T 신약개발), 메디쿼터스(뷰티, 헬스 플랫폼), 바로고(이륜 배달대행), 피피비스튜디오스(컬러렌즈 제작 및 판매) 등 다양한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였으며, 현재 해당 투자기업의 성장과 함께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.

2023년 한국벤처캐피탈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LB인베스트먼트는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여력을 대거 확보하여 금년을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. 2022년 총 2,024억원 투자에 이어 금년에도 2,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며, 상장된 주요 포트폴리오들의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, 펀드의 성과보수 수익도 본격적으로 확대해 갈 할 예정이다.